

국가별 동향



인도

식품분야에 2조 4천억 투자

인도는 350개 식품가공분야에 6월부터 3개월간 2조4천억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계획은 2015년까지 1,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인데 양계분야도 함께 포함되면서 양계산업 발전에도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04년 가공분야 발전수준인 6%에서 2015년 2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Asian Poultry)

55.9%로 나타났으며, 평균 출하일령은 1,652호 농가인 83.8%가 51~55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56일 이상은 10.8%, 46~50일은 5.3%, 40~45일은 0.1%, 40일 이하는 한 농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鷄鳴新聞)



일본

육계평균 출하중량 2.5~3.0kg이 86%차지

일본의 육계 평균 출하중량이 2.5~3.0kg이 1,740호 8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이 3.1~3.5kg이 13.7%로 나타나면서 일본에서는 평균적으로 3kg정도까지 키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났다. 자웅분리사육에 있어서는 분리사육하는 농가가 44.1%, 하지 않는다는 농가가



베트남

ILDEX Vietnam 2010 추진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는 ILDEX(국제축산박람회)가 금년 인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내년 3월 25-27일(3일간)에 개최될 ILDEX Vietnam 2010 행사 추진에 박차를

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의 뉴세콘전시장에서 개최될 이번 박람회와 관련하여 ILDEX대회를 주최하는 Ladda 이사는 “축산, 우유, 육가공, 수산까지 포괄적으로 개최될 베트남 박람회가 참가업체는 물론 참관객들에게도 훌륭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매년 개최키로

한 인도 ILDEX는 2년에 한번씩 개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NCC)



캐나다

전문 가금연구, 복지센터 추진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의 겔프(Guelph) 대학에 전문적인 가금연구, 복지센터가 설립된다고 캐나다의 한 농업전문 보고서가 밝혔다. 이 계획은 캐나다 농식품부(AAFC)가 가금협의회 등의 건의를 받아 지원하고 있다.

이 센터의 주 목적은 캐나다의 모든 가금전문 분야의 연구와 기술분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 질병, 경영, 생산 등 전국의 가금 전문가들이 이 센터에 참여하여 가금의 전반적인 연구와 최근 이슈가 되는 가금복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것임을 밝혔다.(WATT Poultry)



네덜란드

초대형 계란후라이 공장

네덜란드 북부 레이우아르덴에 위치한 Zeiland 광장에 직경 30m의 거대한 계란후라이들로 가득하다. 'Art Eggcident'라고 이름 지어진 거대한 후라이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아티스트 Henk Hofstra의 설치 미술 작품이다. 삭막한 도

시에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색적인 상상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아이들은 놀자 위에 올라가 뛰어 놀고 사진도 찍으며 계란과 친숙한 모습을 자아냈다.

이렇게 계란후라이를 설치한 작품들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날마다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썩은 계란이 될 수도 있다는...(Daum 블로그)



태국

계란가격 하락

태국의 계란가격이 최근 원재료 비용 절감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등급구분이 없는 일반 혼합등급란은 8월에 개당 2.60바트에서 2.40바트로 떨어졌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3등급 계란 가격도 개당 2.95바트에서 2.85바트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생산비 절감으로 인해 계란의 개당 생산비용이 2.30~2.40바트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으로도 농장주들에게는 적당한 이득이 되고 있다.(Asian Agribusiness)